	인도(뉴델리) 통상사무소	작성팀	마케팅지원팀
	해외동향보고서	담당자	하 승 창 소 장
		일 시	2024. 1.

CEPA Insight

- 세계경제 침체 초입, 인도는 큰 성장 이룰 것으로 전망
- 인도 소비자 시장 개관

< 2023년 12월 기준 對 인도 교역현황 >

구분	수출액	전년 동월대비 증감율	수입액	전년 동월대비 증감율	무역수지
전국	1,589,115천불	6.9%	540,426천불	8.6%	1,048,690천불
충남	231,128천불	26.8%	8,108천불	△30.7%	223,020천불

※ 출처 : 한국무역통계(<http://stat.kita.net/>)

■ 세계경제 침체 초입, 인도는 큰 성장 이룰 것으로 전망

• 글로벌 경제가 경기침체 초입 단계에 도달했으나 인도는 완전히 반대

- 인도는 지난해 '탈중국'을 모토로 한 세계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국가. 인도 증시 시가총액은 2023년 4조달러(약 5300조원)를 돌파하며 홍콩을 제치고 세계 증시 5위에 오름.
- 스와럽 모한티 미래에셋운용 부회장에 따르면 인도 시장을 추천하는 이유로 '5D'를 꼽음. 5D는 낮은 부채(Debt) 비율, 탈세계화(Deglobalization), 탈규제화(Deregulation), 디지털화(Digitalization), 인구통계(Demographics)를 뜻함.
- 모한티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부채비율이 100%를 넘는 국가가 많은데 인도는 80% 내외로 안정적"이며 또 "최근 미·중 갈등을 피하기위해 글로벌 기업이 중국 외 생산 기지를 또 한 곳 마련하는 '차이나 플러스 원(China+1)' 전략을 펴고 있다"면서 "이 같은 탈세계화 기조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건 인도"라고 말함. 최근 인도 정부가 규제를 철폐하는 등 탈규제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특징.
- 그는 "인도는 인구 중 50% 가까이가 30세 이하인 매우 어린 국가"라면서 "인도의 인력 잠재력은 누구도 따라가기 어렵다"고 강조.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투자자들이 인도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분야로 소비재, 헬스케어, 사회기반시설, 금융, 제조업 등 5가지 분야를 꼽음.

- 특히 그는 "제조업은 인도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성장시키고 있는 업종"이라며 "인도 정부가 생산연계보조금(PLI)과 같이 내수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제조업 성장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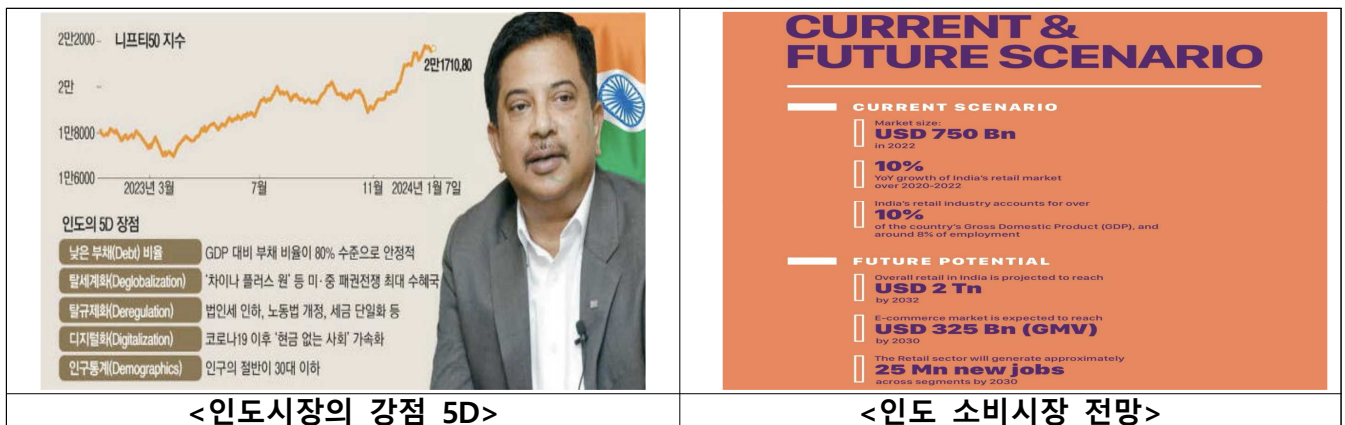
(출처:매일경제 /2024.01.08)

■ 인도 소비자 시장 부분 개관

- 아시아에서 3번째로 큰 소비시장이며 미, 중, 일을 뒤이어 4번째로 큰 시장. 2030년, 세계 3번째로 큰 소비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

- 소득성장: 2019년부터 2030년까지 평균 가계소득이 40%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성장예측: 2030년까지 소비지출이 USD 6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도 시 화: 2023년까지 인도 인구의 40%가 도시거주자가 될 것으로 보이며 비도시지역의 1인당 소비자 4.3배 성장/ 도시지역은 3.5배 성장할 것으로 예측.
- 온라인소비: 온라인구매자가 2020년 1억 5천만에서 2030년 5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노동 인구: 2030년 중위연령(중국 42세/미국 40세) 31세로 전망. 전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

(출처: static.investindia.gov.in/ updated on Nov. 2023)



■ 인도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출방안 모색 필요

- 다양한 지표에서 성장이 전망되는 인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하여 현지 시장 특성을 고려한 진출방안을 모색해야 함.

- 인도 시장은 젊고, 적극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이 뒷받침되고 있는 시장이나 급작스러운 정책변화와 강력한 정부 통제 등의 예측이 어려운 부분도 존재함. 인도 시장을 거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며 성장 방향을 예상하고 장기적인 진출계획을 세우는 것이 인도를 공략할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임. 끝.